

한국건강관리협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성일씨 취임



지난 4월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성일씨(전 보건복지부 관리관)가 취임했다.

신임 김성일 사무총장은 1950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74년 행정고시 합격(15회) 이후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 기획·법무·예산담당 사무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장·국립서울정신병원 의료사회사업과장, 보건복지부 통계담당관·자립지원과장·복지자원과장, 가정복지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건협은 전임 김행진 사무총장의 퇴임식을 지난 3월 26일 협회 강당에서 가졌으며, 김행진 전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상인 회장, 함춘대상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 김상인 회장이 서울대의대 동창회 주관 제5회 함춘대상 사회공헌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3월 29일 서울의대 동창회관(함춘회관)에서 상을 받았다.

김상인 회장의 함춘대상 수상은 1955년부터 38여년 동안 서울의대 교수로 봉직하면서 교육, 연구, 진료 및 후진양성에 전념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명예원장, 부총재, 초대 혈액수혈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과 혈액학 및 수혈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을 인정받아 이루어졌다.

함춘대상은 서울대의대 동창회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학문 및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해 온 동문을 뽑아 수여하는 상이다.

2004년도 상반기 영상검진분야 의사간담회 및 전문교육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3월 13일 대전시 유성구 흥인호텔에서 2004년도 상반기 영상검진분야 의사간담회 및 전문교육을 김상인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지부 방사선과 전문의 및 영상검사과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영상검진 술식 및 판정의 표준화를 통한 검진결과의 신뢰도 향상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건강검진의 오류로 인한 분쟁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회발전 및 검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방향 제시를 위한 의사간담회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지식습득과 정도관리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무자 중심의 정도관리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부산지부, 중국 의료현장 방문 동북아검진 Hub 추진사업 일환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김성대 사무국장과 정순덕 검진관리부장이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시 소재 대표병원인 인제병원, 약양병원, 박예병원을 방문하여 중국 의료교류 추진을 위한 현장정보를 수집했다. 김국장 등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의 의료수준 및 의료체제의 정보 공유, 의료 개방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중국 상류층 Target Marketing 등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중국방문은 동북아검진 Hub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 해외 교류협의회"가 추진 중인 대 중국의 료현장 방문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 슬로건을 "세계검진축의 원년 <World-wide medical examination celebration first year>"으로 정한 부산지부가 이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참여했다.

제주지부, 제주동초등학교 건강생활실천반 운영



제주동초등학교에서 주관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제주시보건소, 부산대 비만연구소, 전국주부교실 제주지부가 공동 후원하는 비만치료를 위한 기초체력반 출범식이 지난 3월 12일 제주동초등학교에서 있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건강생활실천반은 전학년에 1개반씩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체력반을 편성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바른생활습관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협조하게 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비만 교육, 바른식습관 교육, 코끼리스포츠단 운영, 생활습관병 검진 등이다. Z